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합양은 재배의 적지
● 합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 원조계 동내
● 깨끗한 인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복잡함보다 절제미
화려함보다 소박
과장보다 자연스러움

패션 인테리어 화장 CF 음식

의식주에 '禪비람'



◇다상과 다기로 연출한 실내 인테리어는 한결 여유와 편안함을 준다.



◇화색터치로 세련되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옷감을 유행화장법.



◇승가풍의 가람을 특화시킨 침대와 방석세트.



◇무채색이 정갈해보이는 타겟과 육실내화.



◇발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식기.

선의 상품화 우려시각도

속세가 너무 혼탁해사일까. 길벗만을 추구하는 삶이 허탈해사일까. 요즘 패션계는 물론이고 리빙, 인테리어, 광고, 화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禪) 스타일'이 유행이다.

물질위주의 서양문화가 20세기를 지배했다면 새 천년에는 동양문화가 한층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동양문화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선(禪)'이 의식주 생활 전반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선(禪) 스타일'은 복잡함, 화려함, 과장됨, 시끄러움 등이 아닌 순수, 절제, 정갈함, 고요함, 자연스러움 등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젠(Zen, 禪의 일본말 발음)'이라고 불리는 이 스타일은 '자연주의' 흐름과 맞물려 현대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생활 속 깊숙히 파고 들고 있다. 마음을 가다듬고 무아의 경지에 몰입해 자아를 찾는 선(禪)의 정신세계를 통해 대안을 찾고 싶어하는 육구가 세계적인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선(禪) 비람'이 자칫 선(禪)의 지나친 상품화를 조장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스님은 "선(禪) 붐'의 대중화라는 면에서 부정적일 수만은 없지만 대중화에 편승해 선(禪)의 정신세계에 대한 조영없이 외관상의 요소만으로 선(禪)을 상품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선(禪)이 국제적으로 '젠(Zen)'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풍이 마치 '선 스타일'인양 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패션

국내 의류매장에서 올 가을 유행 의상으로 쇼윈도우에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는 신제품들은 하나같이 카키색 베이직복 갈색 등 낙엽을 담은 빛깔들과 '가리앉은 화석'이 물결을 이룬 것은 화려한 장식물 배제한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스타일의 선(禪) 트렌드를 따른 것이다.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8월17일 열린 '여성복 전시회'는 동양문화의 상징인 '선'이 세계패션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선' 트렌드는 97년부터 미국·파리·밀라노 컬렉션에서 도나 카린, 요지 야마모토, 질 샌더, 레이 가와쿠보, 마우치야 프라다, 드리 스반 노른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앞다투어 반영해 관심을 끌었다. 국내에서는 정구호씨를 필두로 한승수, 박병규 씨등 20~30대 커리어 우먼과 전문직 남성을 타겟으로 선(禪) 스타일의 옷을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체 니켈리프 이경은 디자인실장은 "새 기말이 내포하고 있는 '미래' '허무' '절제' 등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선(禪)'이라는 점에서 동·서양 문화 디자이너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화려한 색깔로 치장되던 인테리어가 담백하면서도 절제된 분위기의 선방(禪房) 이미지를 담은 인테리어로 집안풍경을 바꾸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복잡한 일상생활, 속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삶이 되고 싶은 욕구를 회복해 나른 공간의 여백에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의 가구 및침구 등으로 꾸며 정갈한 승가풍을 연출하고 있다. 거기에 옛 선방에서처럼 거친 닥종이 천장과 벽바닥을 발라 동양의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효과까지 연출하는 등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최초의 원목가구 회사인 까사미아는 올해 들어 '선 스타일'의 '살림 시리즈'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까사미아는 '살림시리즈' 중에 승가풍의 '가람'을 특화시키고 있는데 가람 침대요, 가람 침대, 가람 식탁외, 가람 테이블(T-TABLE) 등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발우 형식의 오리엔탈 곡그릇과 젓가락, 접시 등도 선보이고 있다. 까사미아 홍보실 김혜영씨는 "앞선 감각의 신제품 개발에 주력



◇세계 패션계에 동양적인 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사진은 불화 이미지 지를 패션에 복인 한성대 이기향교수의 의상작품 패션쇼.

해 온 본사는 새 천년에는 동양문화가 한층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동양문화 저변에 깔린 불교적 색채를 인테리어 디자인에 응용했다며 소비자들 사이에 반향이 좋다고 귀띔했다.

화장

화장을 두드러지도 선(禪)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화려함' 대신 은은하면서도 내추얼리움을 지향하는 메이크업으로 여성들의 내면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 화색이 가미된 은화한 느낌의 '중간색'을 주류로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메이크업을 해 자연스럽고 소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향이 있다. 올 가을 메이크업 방향을 '선 사상'에서 잡은 테크양은 '비밀이 담긴 칼라-시크릿 브론드(Secret Bronde)'라는 주제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는데 치중하고 있다. LG 화학과 역시 브라운으로 얼굴 전체에 차분함을 강조하며 옐로우, 와인(보라색 계통), 등을 가미해 동양 여성 고유의 신비로움을 강조한다.

마음의 평화를 중시하는 '선 스타일'은 색조뿐 아니라 기초화장품에도 도입되고 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장품회사 랑콤은 스키투스를 풀어준다는 '이드라 쉐'를 개발, 이달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피부학적인 효과는 물론 정신적인 평화까지 주겠다는 판매 전략에 세계여성의

CF

호기심이 쏠리고 있다. '불교'를 소재로 한 광고가 그 이미지의 과격이나 신선함으로 대중에게 어필해 잇따라 제작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불기리시', '노란 옥시크림', '사리온', '다이제스티브', '시티맨', '스피드 011 산사편' 등의 광고에서 특히 참신하는 스님들이 소재가 되고 있다. 이들 광고는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과 불교 특유의 절제된 분위기로 광고 이미지를 심플 살리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컴퓨터업체에서 선보인 불교 소재 광고는 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것은 물론 동양의 신비로움을 서구의 합리주의에 대비시킴으로써 이색적이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 세계적인 다국적 컴퓨터업체인 컴팩의 광고(양손을 합장한 두 명의 스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는 7년간 도를 닦은 끝에 마침내 공중 부양에 성공한 '고수(高手)'와 여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하수(下手)'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IBM 또한 스님들을 모델로 제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쓰기도 했다.

음식

'요리는 문화다.' 최근 요리평론가들은 요리에 대해 유행의 거리를 가장 변화무쌍하게 채색하는 요소라고 말한다. '선(禪) 비람'이 예외없이 요리에

도 불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영양의 균형을 물론 심리적 안정을 위한 건강식물에 눈을 돌리면서 사찰음식(禪食)에 관심을 갖게됨에 따라 사찰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 특히 입맛이 서구화되면서 늘어난 비만인구와 노인,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선방 스님들이 몸을 가볍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주로 먹던 곡물아채식과 녹차, 감잎차 등 전통차는 선풍적인 인기다. 비즈니스맨들의 아침 대용식으로도 호평. 최근에는 또 개인에 맞게 영양특성을 맞춰 공급하는 '디자인 푸드(Design Food)' 개념이 선상에 도입되어 공급되고 있다.

도달선 기자
(psdo@buddhapia.com)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마애불 북한산 석가여래좌상.

마애불을 찾아서

북한산 석가여래좌상

감실피서 돌을새김으로 좌상 새겨 8각 머리돌 얼굴보호...보물 215호

북한산 거대한 비위면에 감실을 약간 파서 웅대한 좌상을 돌을 새김으로 새긴 것이다. 머리 위에는 8각의 머리돌을 끼워넣어 얼굴을 보호하고 있어서 비록 전신은 없어졌지만 잘 보존되고 있는 편이다. 박력있는 얼굴에는 단정한 미소가 풍기고 있는데 커다란 코, 크고 긴 귀는 이 불상의 특징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합마촉지인을 짓고 있는 상체는 건장하고 당당하지만 각지고 경면적인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어 경직된 특색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각형이지만 잘룩한 허리와 절도있는 팔, 장대하고 움직임이 없는 듯이 정적이며, 우견편단한 불의는 비교적 얇은 편이지만 왼쪽 팔에 묘사된 우주물은 세로 평행우너서서 기하학적인 추상성도 나타내고 있다. 대좌도 양면과 복면을 결친 결연꽃무늬인데 꽃무늬를 겹으로 묘사한 것이 불상과 잘 조화되고 있으며 진동양식과 추상성을 가미한 이 불상은 고려시대 전반기의 대표적 마애불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보물 215호.

글·사진=불자보고사지연학회 제공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고행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백을 차관하는 등 진경과 함께 무와 명에 불려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평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006호)했다. 친한가족 특별 카드 보급으로 선보이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 카드는 앞면 달마도의 대가 대한 유희우 신성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안목포팅함으로써 빛이 지나가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장하기 쉽다.

사람이나 물건들의 풍수 보석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면 달마도를 4인, 8인, 12인, 16인, 20인, 24인, 28인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장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세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물안개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주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송 가능하며 최고의 친인 달마도를 고급 프구역자(27cm×32cm)화한 액자 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대형 유희우신성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달마도 순금판 성비산 달마도 달마도 열쇠고리 1개: 1만원, 3개(세트): 2만원에 판매

●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처: 한국 지.안.씨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 영업점 모집



이기향교수가 말하는 선패선 "처음 만난 사람도 오랫동안 만났던 느낌"

"선 패션은 정형화된 게 아닙니다. 입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패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술의상연구가 이기향교수(한성대 의류직물학과)는 처음 만난 사람을 이미 오래전에 보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게 바로 '선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이교수는 현란한 장식보다는 단아하

고 깨끗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몸에 꼭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있는 편안한 스타일 즉, 절제미가 돋보이는 단순한 선이 강조된 옷을 추천한다. 특히 울 가 울에는 칼라가 없는 물판에서 연결돼 보통 칼라보다 높게 만들어진 하이넥 디자인의 재킷이 선호되고 있다고. 또 의상의 색깔과 소재에서도 선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색깔에서는 회

색톤이 가미돼 전체적으로 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소재에서는 면 마 실크 모 캐시미어 등 천연소재의 자연미가 강조된 것이 선택되어 진다는 것. 이교수는 "인간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형용되지 않고 하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게 세계적으로 스타일의 최대 장점"이라며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소재로 경직된 일상을 벗어나는 맛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